

<제 893회 서초금요문화마당>

서초구민과 함께하는 무용축제

- 일 시 : 2014. 10. 24(금) 19:30
- 장 소 : 서초구민회관
- 공연단체 : 한국무용협회

Program

1. 중앙무용단 < 축연무 >

우리나라 정악의 백미(白眉)라 불리는 수제천(壽齊天)의 선율을 바탕으로 궁중무용인 정재(呈才)를 재탄생시킨 작품으로 우리나라의 태평성대(太平聖代)를 축원하는 내용을 담아낸 작품이다.

2. 문영철 발레 뽀에마 < 파드카트르 >

막이 열리면 분홍색 로맨틱 튜튜를 입고 서로 헤어 스타일을 달리한 네 사람이 사론의 석판화에 그려진 모습 그대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윽고 함께 춤을 추기 시작하면 최고의 무용수로서의 자부심과 위엄, 그러면서도 서로에 대한 선의의 라이벌 의식을 느낄 수 있어, 로맨틱한 발레만의 우아한 분위기에 더해 다소 익살스런 맛을 더해준다.

발레리나들은 자신이 맡은 역할, 즉 초연 때의 4대 스타를 방불케 하는 느낌의 바리에이션을 보여주고 서로 가까운 듯 보이는 첫장면에서의 모습과 똑같은 포즈로 취하면서 막이 내린다.

3. 전미숙 K-Arts 무용단 < Nothing To Say >

허무주의에 대한 철학적 탐닉, 최근 니트(NEET)족이 증가하고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뜻이다. 그들은 가장 눈부신 나이에 왜 인생의 즐거움을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에 두었던 것일까. 내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외적인 요인도 꽤 작용했을 것이다. 삶의 의욕을 잃은 이들에게서 쏟아지는 말은 모두가 "허무하다"이다. 이 작품은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무기력한 삶에서 발견하는 공간을 묘사한다. 과연 이 침묵의 긴 일상 속에서 이들을 위한 새로운 대안 공간은 숨쉬고 있는 것인가? 통로가 있는가?

4. 중앙무용단 < 풍고 >

풍고는 바람처럼 광대한 평야를 질주하는 기마민족 이었던 여인족의 기상을 살려 한국여인의 내면에 흐르는 강인함을 표현한 작품이다. 풍고는 천둥과 번개의 가락이기에 자연의 진동의 내재물을 포착하여 장단으로 풀어내고 다양한 북이 한데 어우러져 풍물의 역동적인 동작과 개인기로 신명의 판을 만드는 최고의 볼거리로서 춤사위와 가락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하여 무대화 시킨 작품이다.